영화배우 새뮤얼 잭슨 "AI 사용한 내 모습 제작·활용 반대한다"

美롤링스톤誌 인터뷰서 영화내 AI 사용 의견 밝혀
스타워즈부터 자신 모습 '스캔'…마블은 모든 장면 스캔
"AI로 내 모습 등장시키고 싶으면 언제든 가능할 것"

미국의 유명 배우 새뮤얼 L. 잭슨이 영화 속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혔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새뮤얼 L. 잭슨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출연한 영화 내에서 AI를 사용해 자기 모습을 연상시키는 제작물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 속 AI 사용을 둘러싼 논쟁은 최근 마블의 새로운 드라마 시리즈 '마블 시크릿 인베이젼'이 개봉하며 다시 불붙었다. '마블 시크릿 인베이젼'의 감독 알리 셀림이 작품의 오프닝 크레딧을 생성형 AI를 사용해 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 관계자와 팬들 사이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작품에 주연으로 출연하는 잭슨은 미국 대중문화 잡지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AI에 대해 엄격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했다.

잭슨은 "사람들은 이제서야 (AI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나? 나는 오래전부터 (AI에 대한) 우려를 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출연한 유명 공상과학(SF) 영화 '스타워즈' 프리퀄 시리즈를 촬영한 이후부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었다고 밝혔다.

잭슨은 자신의 모습을 '스캔'당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역할을 위해 분장을 마친 모습을 카메라로 전부 담아냈다는 것이다. 잭슨은 "스캔을 처음 당했을 때, 나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잭슨은 "나는 스타워즈 감독인 루카스가 나와 절친한 친구라서 (스타워즈 프리퀄) 1편에 나오는 모든 노인을 (다른 시리즈에) 다시 등장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1990년대 영화에 나왔던) 노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해도 루카스는 그들을 여전히 추후에 나올 영화에 넣고 싶어했다"라며 스캔의 목적이 기술을 활용해 그들을 사후에도 영화에 등장시키기 위함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또한 "내가 마블 유니버스에 참가한 이후로 마블 영화에서 의상을 바꿀 때마다 그들은 나를 스캔한다"라며 마블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모든 작품에서 배우들의 모습이 '스캔'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다고 밝혔다.

잭슨은 마블의 '캡틴 마블' 영화 안에서 자신의 나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바꿔서 등장시킨 것을 보고 "정말 (AI를 사용해 나를 등장시키는 것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잭슨은 AI를 통해 자신이 원하지 않을 때

자신의 모습이 영화에 등장하는 것이 배우들에게 충분히 걱정할만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미래의 배우들은 내가 '아니오, 저는 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를 표현하기 위해 항상 하는 것처럼 계약서에서 '무기한'이나 '알려지거나 혹은 알려지지 않은'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으면 그것을 지우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에잇턴, 미니 2집 '언차티드 드리프트' 발매

두 번째 미니앨범 발매…내달 7일 '슈퍼 샤이' 등 선공개

26일 에잇턴은 두 번째 미니앨범 '언차티드 드리프트(UNCHARTED DRIFT)'를 발매한다.

'언차티드 드리프트'는 지난 1월 선보인 데뷔 앨범 이후 약 5개월 만에 발매하는 신보다.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모험을 담았다.

타이틀곡 '엑셀(EXCEL)'은 올드스쿨 힙합 사운드와 하드 록 기타 사운드를 섞은 힙합 장르의 곡이다. 나에게 확신을 갖고, 어떤 상황이 와도 정해진 길이 아닌 나만의 길을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밖에도 얼터너티브 록 장르의 '월드(WORLD)', 어반 힙합 장르의 '워크 잇 아웃(WALK IT OUT)', '스케치(SKETCH)', '아이엔지(ING)' 등 총 5개의 곡이 앨범에 수록됐다. 이 가운데 멤버 윤규가 '월드' 작사에 참여했다.

에잇턴의 두 번째 미니앨범 '언차티드 드리프트'는 26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감상 가능하다.

피프티 피프티 측, 내용증명에 워너뮤직코리아 '유감'

어트랙트 "멤버들 불법적으로 강탈하려 하는 시도"

'큐피드(CUPID)'로 영미권 싱글차트에 균열을 내고 있는 K팝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핍티핍티) 소속사 어트랙트(Attrakt)가 외부세력이 멤버들에게 접근해 전속계약 위반을 유인했다며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그 배후를 공개적으로 지목했다.

어트랙트는 26일 "최근 불거진 외부 세력의 멤버 강탈 시도 사건 배후에 모 외주용역업체와 워너뮤직코리아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어트랙트는 이날 워너뮤직코리아(워뮤코)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모 외주용역업체가 워너뮤직코리아에 접근해 피프티 피프티를 팔아넘기는 제안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려 하는 명백한 시도에 대한 실질적 증거를 이미 포착했다"면서 "워너뮤직코리아에 정확한 해명과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워너 레코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워너 레코드는 작년 세계 주요 음악 레이블 중 점유율로 6위(4.86%)를 기록한 대형 레이블이다. 세계 3대 대중음악 그룹 워너뮤직 산하다. 워너뮤직코리아는 워너뮤직 한국 지사다. 피프티 피프티의 해외 유통사로, 지난 4월1일부터 업무를 진행해왔다.

어트랙트는 앞서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작고 힘없는 기획사가 이뤄낸 이 엄청난 기적을 강탈해 가려는 불순한 외부 세력의 불법적인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떠한 타협도 없이 끝까지 싸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워너뮤직코리아는 어트랙트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내용증명서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소속사의 의견을 존중하며 글로벌 유통사로서 현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이는 다양한 성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워너뮤직코리아는 "계약 이후 지금까지 워너뮤직 그룹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동원해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가 이룩한 성과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불미스러운 의혹이 제기돼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어트랙트는 2021년 설립된 신생기획사다. JTBC 국악 크로스오버 서바이벌 '풍류대장' 공동 제작·투자에 관여했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를 제작·매니지먼트·프로듀싱한 이들은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다. 제작자인 전홍준 대표는 유열 매니저를 시작으로 조관우, 바비킴, 윤미래, 윤건 등을 배출했다.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출신 하성운을 매니지먼트하기도 했지만 K팝 아이돌 그룹을 제작한 건 사실상 피프티 피프티가 처음이다.

최승호 매니지먼트 부문장은 김건모, 솔리드, 이정현 등 인기 가수들과 최지우, 김아중, 황정민 등 유명 배우들을 매니지먼트했다. 피프티 피프티의 곡을 작업한 시안 프로듀서는 젝스키스 출신 은지원, 역시 젝스키스 출신인 김재덕·장수원이 결성한 '제이워크(J-WALK)', 밴드 '럼블 피쉬' 등과 작업했다.

향후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를 어떻게 매니지먼트할 지 관심이 컸던 이유다. 그런데 최근 일부에서 멤버들을 영입하기 위한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프티 피프티는 최근 '큐피드'로 전 세계 양대 팝 차트인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 100에 13주 연속 진입하는 등 영미권에서 주목 받고 있다.

'걸그룹 장인' 박진영, 엔믹스 새 싱글 참여

'걸그룹 장인'으로 통하는 프로듀서 겸 가수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창의성 총괄 책임자(COO)가 JYP 차세대 걸그룹 '엔믹스(NMIXX)' 새 싱글 타이틀곡을 작업했다.

26일 JYP에 따르면, 박진영은 엔믹스가 오는 7월11일 발매하는 세 번째 싱글 '어 미드서머 엔믹스 드림(A Midsummer NMIXX's Dream)' 타이틀곡 '파티 어클락(Party O'Clock)'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박진영이 엔믹스 곡 작업에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진영은 원더걸스, 미쓰에이, 트와이스, 있지 등의 곡을 프로듀싱하며 JYP가 '걸그룹 명가'로 자리잡는 데 기여했다.

또 '파티 어클락'엔 엔믹스 미니 1집 수록곡 '저스트 디드 잇(Just Did It)'에서 호흡을 맞춘 스웨덴 프로듀싱팀 뱅거스 앤 캐시(BANGERS&CA$H)가 편곡을 맡았다. K팝 인기 그룹 곡을 작업한 조세핀 글렌마크(Josefin Glenmark), 폴리나 세릴라(Paulina "PAU" Cerrilla) 등도 크레디트에 이름을 올렸다.

싱글 발매에 앞석 같은 달 3일 발매하는 선공개곡 '롤러 코스터(Roller Coaster)'는 히트 작사가 서지음이 노랫말을 완성했다. 트와이스 '더 필즈', 있지 '체셔' 등을 만든 유명 프로덕션팀 누바이브 뮤직(NuVibe Music)이 작곡에 참여했다.

엔믹스는 지난 5월부터 첫 단독 쇼케이스 투어 '나이스 투 믹스 유'를 전개 중이다. 북미 8개 도시 공연에 이어 방콕, 자카르타, 타이페이, 싱가포르, 마닐라 등 해외 13개 지역 총 14회 규모로 펼쳐진다.

동방신기, 해외 아티스트 도쿄돔 포함 전국 돔 '최다 공연'…89회

한류 듀오 '동방신기'가 올해 일본 전국 라이브 투어로 해외 아티스트 사상 최다 돔 공연 횟수를 기록했다.

2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동방신기는 지난 24~25일 도쿄돔에서 '동방신기 라이브 투어 2023 ~클래식~(TOHOSHINKI LIVE TOUR 2023 ~CLASSYC~)'를 성료했다.

'아이 싱크 유 노(I Think U Know)', '랫 탯탯(Rat Tat Tat)' 등 히트곡을 포함 약 3시간30분 동안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다. 또 두 사람은 솔로 무대는 물론 지난 12일 발매된 일본 신곡 '라임 & 레몬(Lime & Lemon)' 무대까지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25일 열린 도쿄돔의 마지막 공연 현장은 일본 최대 위성채널 방송사(WOWOW)를 통해서 생중계돼 동방신기의 굳건한 현지 인기를 다시 입증했다.

이번 투어는 지난 2월 아이치를 시작으로 히로시마, 후쿠오카, 후쿠이, 미야기, 사이타마, 홋카이도, 니이가타, 오사카, 도쿄 등 일본 10개 도시에서 총 20회 열렸다. 3년1개월 만에 펼쳐진 일본 라이브 투어라 현지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동방신기는 이번 투어를 포함해 도쿄돔 공연 총 30회, 전국 돔 공연 총 89회를 달성하며 일본에서 '해외 아티스트 사상 도쿄돔 및 전국 돔 최다 공연' 기록을 쓰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동방신기의 일본 라이브 투어에 대한 현지 매체들의 관심도 쏟아졌다. 닛칸스포츠, 도쿄 주니치 스포츠, 스포츠호치, 데일리스포츠, 산케이스포츠, 스포츠닛폰 등 일본 주요 매체들은 특별판을 통해 '오늘 전국 투어 마지막 공연', '동방신기, 특별한 여름' 등 도쿄돔 공연 소식을 전했다.

한편,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동방신기는 오는 28일 현지에 새 음반을 발매한다.